



정해옥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hok88@dohwa.co.kr)

물과 문학

1. 문학은 물에서 비롯된다.

강은 인류문명의 발상지요, 생명의 터전이요, 문화발전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인류 문명과 문화는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물은 인류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 인류의 삶은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세계 4대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중국의 황하강 문명 등이다. 이들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

어져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때면 상류로부터 기른 흙이 떠내려 와 토지가 비옥하여 식량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금강변의 석장리 구석기유적, 한탄강가에 있는 전곡리 구석기 유적, 한강가에 있는 암사동의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모두가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중동 지방은 주로 사막으로 덮여 있지만, 고대 문명이 꽃피웠던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도 많았다.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도 오늘날처럼 대부분 건조한 사막 지역이 아니라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에 적합하였고 큰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강을 통한 이동, 물자운반도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경우 고구려 평양성의 외성, 조선왕도의 청계천 등은 운하로 사용되었으며, 백제의 풍납토성, 남한강변의 법천리 고분 등은 하천을 통한 국가의 지배와 물류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생활의 편리를 위한 갖가지 물건들이 발명되며 생산이 늘어나고 각종 기록이나 의사 표현 등을 위하여 문자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문명과 문화도 날로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물과 문학은 아주 관련이 깊은 것은 물론 물은 문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BC6세기에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모든 물질의 본질이라는 데 기초한 우주론을 주장한 바 있지만, 문학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 요소에 물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문학 속엔 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득히 멀고 먼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살아 왔으며, 여기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도 상고시대 이후 계속해서 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학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문학에서 물은 흔히 '생명'이나 '죽음' 혹은 '정화'를 상징하는 수가 많다. '창조의 원천, 풍요, 생명력, 신성함, 재생, 사랑, 인생, 세월'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건국신화나 고대 설화 등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들테면 고구려 건국 신화를 보면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東明王 :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柳花) 부인이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조 동명성제(東明聖帝)는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金蛙)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와는 그 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물의 신) 하백(河伯)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熊神山)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私通)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설화도 물이 신성한 존재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 온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학사상(文學史上)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고조선 때 진졸(津卒) 괘리자고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었다는 가사(歌詞)이다.

이 작품의 출전 문헌인 「고금주(古今注)」에 의하면 어느 날 괘리자고가 강가에 나갔다가 강기슭으로 달려오는 백수광부(白鬚狂夫 : 머리가 하얗게 센 사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사내는 뒤따라 온 아내의 만류도 뿌리치고 강물로 뛰어 들더니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면서 슬피 노래하더니 그녀 또한 강물로 뛰어들어 죽고 만다.

이것을 지켜 본 괘리자고가 비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니, 괘리자고의 아내 여옥은 그 슬픈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를 공후에 담아 노래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후인(箜篌引)」 또는 「공무도하가」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후인'이란 악곡의 명칭을 뜻한다.

한역가(漢譯歌)인 듯한 4구(句)로 된 한문 표기의 짧은 노래의 내용은 이렇다.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公將奈何

(임은 건너지 말 것이지,
임은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으시니
임은 마침내 어이하리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물은 '죽음'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물은 '생명'이나 '생명의 근원'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와 정 반대의 의미인 '죽음'으로도 상징되고 있는 것이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純貞公)의 부인 수로(水路)에 관한 이야기에도 물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경외심, 물의 사나움과 너그러움이 복합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성덕왕 대에 순정공이 강릉(명주) 태수로 부임하여 가던 중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들 태수 일행이 점심을 먹고 있던 옆에는 아주 높다란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고 위에는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내게 저 꽃을 꺾어다 주겠소?”

따르던 사람이 말하였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벼랑 위로 올라가 바위 끝에 붉게 피어난 철쭉꽃을 꺾어다 바치며, 이렇게 노래했다.

셋빨간 바위 가에
잡은은 마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럽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학사에서 유명한 「헌화가(獻花歌)」이다.

…다시 이틀째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臨海亭)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넘어지면서 발을 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다시 한 노인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니, 바닷속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강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그 말에 따르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 나와(그에게) 바쳤다….

수로 부인은 워낙 절세미인이어서 이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산이나 큰 못가를 지날 때마다 신물(神物)에게 빼앗기곤 했었는데, 이때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해가(海歌)를 불렀다고 전해온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 놓아라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네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야기의 맥락이 수로왕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구지가(龜旨歌)와 비슷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고대 문학과 물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비단 고대 문학뿐만이 아니라 근대 문학이나 현대 문학 등에 있어서도 문학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서양이나 동양에서 이제까지 쓰여져 온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더라도 물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지는 문학이 이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물이 세상을 정화한다.

일찍이 순자(荀子)는 이런 말을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水則載舟 水則覆舟).”

물이 지닌 양면성, 즉 그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경고한 말이다. 그리고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물이 지닌 이러한 양면성을 수없이 체득하며 살아왔고, 이것은 다시 문학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물에 대한 인간의 애증이 수많은 문학작품들 속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문학 작품들 속에 응축되어 있는 이러한 물의 의미, 물의 야누스적인 속성, 문학 속에 나타나는 물의 흐름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각성할 수 있고, 물이 그 흐름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듯이 또한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으며, 썩은 물은 내보내고 새 물이 들어와야 웅덩이가 깨끗해지듯이 내 안에 고인 물을 흘려보내야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유연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류의 문학적 흐름은 이러한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물과 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문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 말라가고 있다. 물, 물, 물……’이라는 주제로 「물과 문학」 심포지엄 및 시낭송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물을 주제로 하는 많은 시화작품들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게시되었는데 그중에서 근·현대시 1편씩과 필자의 작품을 소개해 본다. 🌊

